POSRI 이슈리포트

2026.11.23.

인도 新철강정책 초안
2047년 조강 능력 6억톤 목표

이대우 수석연구원, 철강연구센터 (ldw@posri.re.kr)

목차

1. 인도 新철강정책 개요
2. 新철강정책의 주요 목표
3.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4. 종합 및 시사점

posco
포스코경영연구원

Executive Summary

○ 인도 철강부는 2047년까지 장기 비전을 담은 '新철강정책 초안'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철강정책 2017'을 대신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함

- 초안 발표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

○ 가장 큰 특징은 '47년 인도의 조강 생산 능력 목표를 6.04억톤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25년 2.2억톤의 약 3배에 해당

- 인당 강재 소비량은 302kg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의 현재 소비량과 유사한 수준임

○ 탈탄소 전환에도 힘을 기울여, 현재 조강 생산 1톤당 CO_2 배출량을 2.54톤에서 '47년 1.54톤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임

- 수소환원제철,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친환경 전환 기술의 개발 수준을 감안하여 총 4단계로 나누어 대응한다는 방침이나 구체적인 정부 지원 내용은 아직 미확정

○ 생산 능력 증대의 병목으로 지목 받고 있는 원료 확보의 경우, 국내 원료탄 활용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해외 광산에 대한 투자 확대도 검토 중

- 고로에 사용될 원료탄은 수입 의존이 불가피하나, 국내 원료탄의 세탄 설비를 늘려 국내탄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임
- 또한 탈탄소 전환 추세에 맞추어 철 스크랩 사용 비중도 높여 원료탄 의존도를 낮춘 것이 지난 '철강정책 2017'과의 차이점임

○ 정책이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인도 정부는 분야별로 지원 내용을 초안에 담고 있으나, 정부 예산의 투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성은 다소 미흡

- 조강 생산 능력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대규모 부지 사용에 대한 인허가, 용수 및 전력 확보 방안 등이 순차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추후 각계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점진적 해결을 예상함

○ 금번 초안을 통해서 인도가 장기적으로 규모와 성장성 모두 매력적인 시장임을 제시하였으며, 한국 기업은 인도 시장의 성장 기회를 활용할 필요

- 철강산업 뿐만 아니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설비, 인프라 등 관련 산업도 고르게 발전할 수 있어 한국 기업의 인도 시장 개척 노력이 중요

1. 인도 新철강정책 개요

□ 인도 철강부는 지난 10월 초에 '47년까지 장기 비전을 담은 '新철강 정책 초안'을 발표, 10.3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조만간 최종 확정 예정

○ 금번 발표된 정책 초안은 기존의 '철강정책 2017'을 대체하게 될 예정

- 新철강정책 초안은 '26.10.11일(한국시간) 발표되었으며, '47년까지 인도 철강산업이 지향하는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기존 '철강정책 2017'은 '17년에 발표되었으며, '30년까지 목표와 정책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초안은 총 12개 Chap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강 수요, 능력, 원료 등 다방면에서 장기 목표와 정책 내용을 담고 있음

□ 철강부는 금번 정책 초안을 통해 '47년 인도 조강생산 능력을 6.04억 톤으로, 강재 수출은 4,500만톤을 목표로 제시함

○ 철강 수요와 생산을 확대하고, 무분별한 수입은 억제하며, 인도의 취약한 원료 공급망(특히 석탄)을 강화할 방침

- '47년까지 인당 철강소비량을 302kg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프라, 주택, 교통, 재생에너지, 제조업 분야에서 철강 수요 확대를 예상하고 있음
- 인도에서 부족한 원료탄(Coking Coal)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세척(washed) 원료탄의 공급 확대를 통해 수입 의존도를 축소하고자 함

○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적 철강 생산을 촉진하고 수소환원제철, 철스크랩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조강 톤당 CO_2 배출량을 1.54톤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

- 탄소 감축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 CCUS, 순환경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대안이나 정부의 재정 투입 규모 등은 미확정
- 예산 지원은 재정부 등 정부 내 관련 부문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상세 내용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임

【 新철강정책의 분야별 주요 내용 요약 】

분야	주요 내용
철강 수요/생산 확대	- '47 년 1 인당 철강소비량 302kg 달성 - **조강 생산능력 6.04 억톤 확보** - 인프라, 주택, 교통, 재생 e, 제조업의 철강 사용 확대
수출 확대, 수입 대응	- 저품질 철강재 수입 억제 및 핵심 강종 국산화 - **'47 년 철강재 수출 4,500 만톤 달성**
원료 공급망 강화	-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철강 원료 공급 - 국내 광물 선광 및 고부가가치화 - 세탄(washed) 원료탄 공급 확대 및 수입의존도 축소 - 석회석, 돌로마이트 등 부원료 확보 - 철스크랩 회수, 가공, 재활용 체계 강화
탄소감축, 에너지 효율	-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적 철강 생산 촉진 - 수소환원제철, CCUS, 순환경제 등 저탄소 기술 개발·도입 - **조강 톤당 CO_2 배출량 1.54 톤으로 감축** (현재 2.54t)
산업 고도화, 기술자립	- 중소 제철업체, 가공센터, 제작업체의 현대화 - 자동차, 재생 e, 전략산업용 고부가 강재 국산화 - 제철기술, 설비 국산화 및 AI 와 자동화 도입 -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강화
산업안전, 인력 양성	- 산업안전 수준의 글로벌 표준 달성 - 저탄소 제철 전환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확대	- 신흥국과 전략적 협력 통한 핵심 원료 확보, 기술 이전 및 글로벌 철강 가치사슬 참여 확대

*자료: National Steel Policy : Vision 2047 Draft, 2026

2. 新철강정책의 주요 목표

□ 인도 철강부는 현재 인도의 견조한 경제성장률과 높은 조강생산 증가율을 반영하여 '47년까지 달성할 조강 생산, 소비, 생산능력 및 원료 수급 관련 목표치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함

□ '47년까지 6.04억톤의 조강 생산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는 '25년 현재 기준 2.2억톤의 2.75배에 해당함

○ '47년 조강 생산량은 5.31억톤, 강재 소비량은 5.05억톤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경우 인당 강재 소비량은 302kg이 될 전망임

- 인당 강재 소비량의 글로벌 평균값은 '24년 기준으로 228kg이며, EU 27개국이 314kg, 미국이 286kg, 중국은 629kg임을 감안하면, 대략 선진국 수준의 강재 소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도 철강 생산/소비 장기 목표치 (백만톤) 】

항목	현재	전망				철강정책 2017
년도	2025	2030	2035	2040	2047	2030 목표치
1. 조강생산 능력	220	294	411	526	604	300
2. 조강생산량	170	250	349	447	531	255
3. 강재소비량	164	237	332	425	505	230
4. Sponge Iron/DRI 수요	60	83	112	125	143	80
5. 인당 강재소비(kg)	116	158	220	262	302	158

*자료: National Steel Policy : Vision 2047 Draft, 2026

□ 또한 인도 철강부는 '47년 7.72억톤의 철광석과 2.36억톤의 원료탄, 1.23억톤의 철스크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 기존 '17년 정책과 비교해 볼 때, 철광석 수요는 조금 낮게 전망하는 대신 철스크랩 수요를 높게 예측한 것이 특징임

- '30년 전망치 기준으로 기존 정책에서는 철광석 수요를 4.37억톤으로 전망하였으나 금번 초안에서는 3.67억톤으로 낮췄으며, 대신 철스크랩 수요는 기존 1,600만톤에서 5,800만톤으로 크게 높였음

- 이는 탄소저감 활동이 지속됨에 따라 친환경제철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철 스크랩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인도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긴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인도에서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원료탄 확보를 위해, 국내 원료탄 활용 확대, 해외 공급원 확보, 원료탄 사용 효율 개선 및 장기적 원료탄

의존도 완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함

○ 국내 원료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도 내 고회분탄에 대한 세탄설비(Coal Washery) 신설을 촉진하고, 수입탄과의 블렌딩을 장려하며, PCI탄을 더 활용함으로써 코크스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어느 정도까지 세탄 설비를 늘릴 것인지, 연도별로 국내 원료탄은 얼마까지 공급할 것인지 등 상세 목표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은 추후 정책 집행 상황을 보면서 정해질 가능성이 큼

【 인도 원료 소비 관련 장기 목표치 (백만톤) 】

항목	현재	전망				철강정책 2017
연도	2025	2030	2035	2040	2047	2030 목표치
1. 철광석	299	367	516	590	772	437
2. Coking Coal	72	99	136	163	236	161
3. Non-coking Coal for PCI	17	19	28	39	48	31
4. Non-coking Coal for DRI	68	105	133	150	167	105
5. 망간광	11	15	22	28	34	11
6. 석회석 & 돌로마이트	34	54	75	95	128	86
7. 철 스크랩	36	58	81	103	123	16

*자료: National Steel Policy : Vision 2047 Draft, 2026

□ 철강산업의 CO_2 배출량은 현재 2.54톤/조강1톤 수준이며 이는 글로벌 평균 1.92톤에 비해 높은 편이나, '47년까지 1.54톤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

○ 탄소 저감 방안으로는 기술 개발 수준을 감안하여 4단계로 나누어 추진

- 1 단계는 에너지 효율 제고, 2 단계는 석탄 가스화+재생 e, 3 단계는 그린 수소 활용 및 CCUS, 그리고 마지막 4 단계에서는 기존 방법의 대규모화와 CCUS 병행

3.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 정책 초안에서는 철강 수요 확대, 원료 확보, 물류 인프라 개선, 국산화 지원, 저탄소 전환 지원, 안전 강화 등을 중심으로 인도 정부의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원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거 인도에 풍부했던 철광석의 경우에도 고품위 철광석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신규 광산 개발, 저품위 광석에 대한 선광을 확대하고 해외 광산에 대한 투자도 추진

○ 과거부터 부족했던 원료탄의 경우, 국내 석탄 활용을 위한 세탄 설비 확대와 해외 광산 확보를 지원

○ 저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CCUS 기술을 개발하고, 재생에너지와 철스크랩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인도 정부 지원 내용 요약 】

분야	정부 지원 내용
철강 수요 확대	인프라·주택·교통·제조업의 철강 사용 확대, 수출 지원
철광석 확보	국내 광산 개발·선광 확대, 해외 광산 투자 및 장기 공급계약 촉진
원료탄 확보	국내 원료탄 세탄설비 확대, 해외 광산 확보, 배합기술 개선
물류 인프라	슬러리 파이프라인 단일창구 인허가, VGF* 일부 지원 추진 * VGF(Viability Gap Funding) : 사업성 부족시 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
고급강 국산화	자동차·방산·항공우주용 특수강 투자 및 기술 국산화 지원
저탄소 전환	수소환원제철·CCUS 기술개발, 재생에너지·철스크랩 활용 확대
중소 철강업체 현대화	Viksit Bharat ISPAT 도입 추진. 생산량·탄소감축 실적에 연계한 인센티브 : 정부 지원제도 규모 500 억 루피(약 8,000 억원) 제안
철스크랩 확대	노후 차량·건설폐기물·산업설비의 스크랩 회수체계 강화
연구개발·디지털화	Steel Digital Centre 설립, 국가 철강 데이터 플랫폼 구축
수입 대응·산업안전	AI 기반 수입 모니터링, 무역구제 활용, 철강산업 안전위원회 설치

*자료: National Steel Policy : Vision 2047 Draft, 2026

□ 다만,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고, 제철소 건설과 광산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속도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분명하지 않음

○ 조강 생산능력을 '25년 2.2억톤에서 '47년 6.04억톤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매년 1,700만톤 규모 제철소가 건설되어야 하는데, 인도의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 제철소 부지 확보, 용수 확보, 철도망 연결, 폐수 처리, 전력망 연결, 광산과 슬러리 파이프 라인 연결, 주민 이주 대책 등 복잡한 인허가 문제가 존재함

4. 종합 및 시사점

□ 인도의 新철강정책 초안을 통해 장기적으로 인도 철강 시장의 높은 성장성을 예상할 수 있으며, 양적 성장 외에 질적 향상도 병행 예상

○ 인당 강재 소비량은 '47년 선진국 수준에 이를 전망이며, 고부가 제품 개발,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질적 성장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

□ 다만 목표 달성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 내용은 깊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추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

○ 저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인프라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예산 지원과 함께 인허가 속도 또한 개선이 필요함

□ 인도는 규모와 성장 속도 모든 면에서 주목할 만한 큰 시장이며, 한국 기업들은 인도 철강시장의 성장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철강 뿐만 아니라 설비, 인프라, 수요 산업 등 철강 산업과 동반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에서 시장 기회 발굴 노력 필요

(참고) 인도 경제성장률 및 조강 생산 추이

□ 인도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7%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 중

○ FY2020-21년에 -5.8%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다음 해에는 9.7%로 반등에 성공하였으며, FY2025-26년에도 7.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FY2025-26 회계 연도는 '26.3월에 종료, '26.6월 추정치로 집계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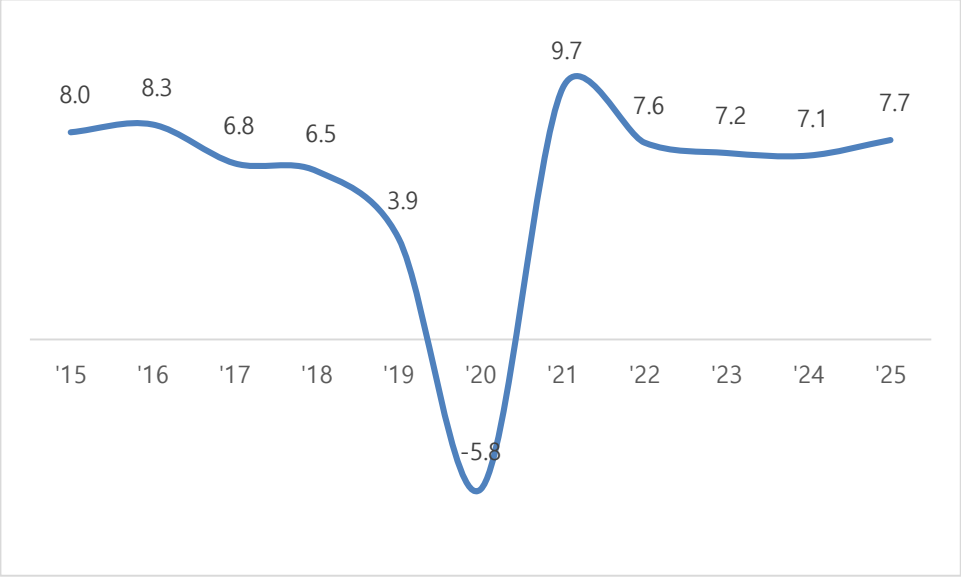
○ FY2025-26년의 경우 명목가격 기준으로 1차 산업 비중이 19.9%, 2차 산업이 25.8%, 3차 산업이 54.3%를 점유하는 등 서비스 업종이 강세

- 1차 산업에는 농수산업과 광업이 포함되고, 2차 산업에는 제조업, 전기/ 가스/수도업 및 건설업이 포함, 3차 산업에는 서비스업이 해당

○ 인도 철강부는 '47년까지 장기적으로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가정하고 있어,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시각도 존재함

- 통상 10~20년 단위로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하면 미래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가정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 존재

【 인도 경제성장률 추이 (%) 】



*자료: 인도 통계부 (MOSPI) Press Note, '25년 잠정 추정치 ('26. 1월,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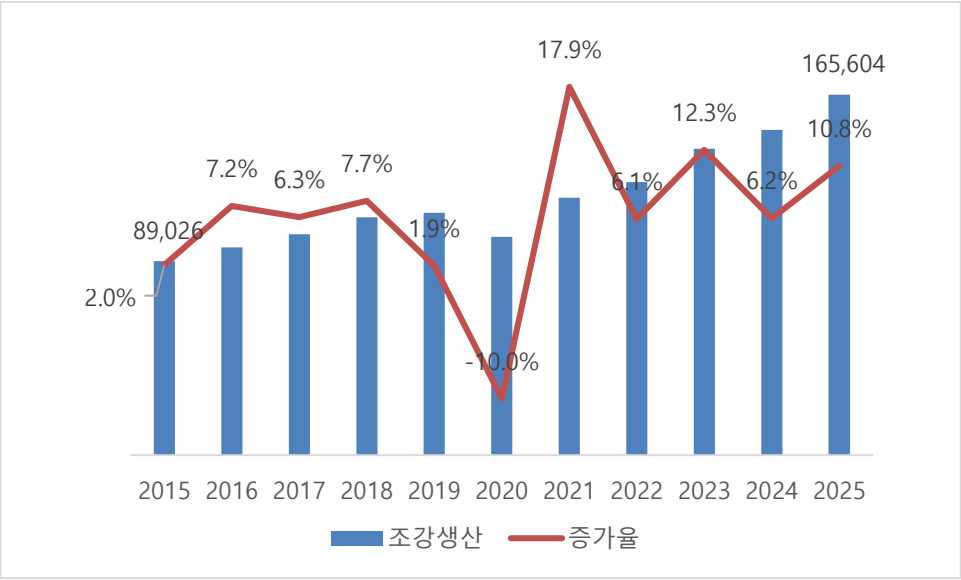
주: '15~'22년의 Base Year는 2011-12년, '23~'25년의 경우 2022-23년 Constant Price기준

□ 인도의 조강생산량은 '15년 8,900만톤에서 '25년 1.65억톤으로 연평균 6.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인도 철강부가 '47년 철강산업 목표를 정하는데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인도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과 인도 철강사들의 지속적인 설비 증설에 힘입어 조강생산 또한 꾸준히 늘고 있으며 높은 성장세 기록

- 인도 정부는 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낙후한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프라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반제품 포함 강재 수출입 상황을 살펴보면, '25년 기준으로 수출은 990만톤, 수입은 1,040만톤으로 소폭 순수입 상태이나, 순수출과 순수입 상황은 고정되지 않고 내수 경기 및 강재 가격 상황에 따라 소폭 변동 중
- 대체로 인도의 철강시장은 수출보다는 내수 성장세에 기반하고 있음

【 인도 조강생산량 추이 (천 톤, %) 】



*자료: The World Steel Association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보고서/논문]

Ministry of Steel (GoI), National Steel Policy : Vision 2047 Draft

Press Note on Provisional Estimates of Annual GDP 2025-26 (MOSPI), '26.6월
MOSPI :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홈페이지]

The World Steel Association (worldsteel.org)